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성 연구

이예지^{1*}, 이송이²

¹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²다르마칼리지

A Study on The Subjectivity of College Students to Independence from Parents

Ye Ji Lee^{1*}, Song Yi Lee²

¹Graduate School, Dongguk University

²Dharma College, Dongguk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Q방법론을 활용하여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적인 인식 유형을 분류하여 유형들 간 그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Q방법론을 활용하였고, Q표본은 선행연구, 설문조사,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40개의 진술문으로 확정하였다. P표본은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으로 구성되어졌다. Q분류를 실행해 나온 진술문 번호에 따라 코딩한 후 QUANL 프로그램을 이용해 나온 결과를 주요인 분석했다. 총 4가지의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제1유형은 독립에 대한 이상적인 가치관을 갖고 자아 성장과 부모와의 유대 형성, 경제적 감각을 모두 꿈꾸는 '부모로부터 현실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이다. 제2유형은 세상에 진정한 독립은 없다고 여기며 부모로부터 독립에 회의적인 '부모로부터 벗어난 독립이 두려운 대학생', 제3유형은 자아성장과 취업의 과정을 거쳐 독립하길 원하는 '자아 성장을 이루며 독립하려는 대학생', 제4유형은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자 하는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려는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각 유형별 특성에 대해 심도 있는 이해를 하고 앞으로의 대학생의 독립과 성장에 대한 논의 및 기초 자료로 활용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used the Q methodology to classify the types of subjective perceptions of college students regarding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and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in detail. Using the Q methodology, the Q sample was confirmed to be 40 statements through prior research, surveys, and in-depth interviews. The P sample comprised first to fourth year college students. After running the Q classification and coding according to the statement numbers, the results were analyzed for key factors using the QUANL program. A total of four types were derived, with the first type being 'college students who pursue realistic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which included those who have ideal values about independence and dream of self-growth, forming bonds with parents, and making economic sense. Type 2 included college students who believed that there was no true independence in the world, were skeptical about independence from parents, and were afraid of independence from parents. Type 3 comprised college students who wanted to become independent through the process of self-growth and employment. Type 4 were college students who wanted to become completely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and who wanted to achieve complete independence from their parents. It is hop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an in-depth understanding of the characteristics of each type and be used as basic data for the discussion on the independence and growth of college students in the future.

Keywords : A College Students, Independence, Growth and Adaption, Subjectivity, Q Methology

*Corresponding Author : Ye Ji Lee(Dongguk Univ.)

email: yeji8522@gmail.com

Received September 13, 2023

Accepted November 3, 2023

Revised October 27, 2023

Published November 30, 2023

1. 서론

20대에 접어든 대학생들은 청소년기를 벗어나 부모에게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 자신을 탐색하고,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준비를 한다. 청년기 대학생은 심리적 독립과 더불어 경제적 독립, 물리적 독립을 비롯해 자아 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에게 맞는 진로를 탐색하는 시기를 거치게 된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치열한 교육열과 입시 과정으로 인해 대학 진학이 늦어지거나 오랜 기간 학업을 연장하는 청년기 대학생들이 증가함에 따라 부모로부터의 독립 시기가 지연된다[1]. 한국 사회에서 오늘날 대학생들이 완전한 독립을 이루기에는 여러 문제들에 직면하고 있다. 그럼에도 건강한 성인기를 보내기 위해서는 부모에게 의존하지 않고 독립적인 삶을 꾸려나갈 준비를 하는 과정들이 상당히 필요하다[2].

대학생 시기는[2]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 가운데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며 부모와 다른 성인들로부터 심리적인 독립 및 진로 탐색을 하며 자기 자신에 대해 더 잘 알고 이해하며 이전보다 넓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독자적이고 자율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스스로 노력하는 독립 준비의 단계이다. 이러한 대학생 독립의 과정을 거치면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 그들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여 개별적이고 자율적인 생각을 통해 행동하고 심리적 자유감을 얻는다[3]. 또한, 대학 생활을 통해 자아정체성을 확립하여 더 성장하게 되며 부모님의 직접적인 개입 없이 자신의 방향성을 스스로 결정하고 실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청소년 시기와는 달리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독립된 환경을 경험하고 성인기를 준비하게 된다.

청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지 못하면 직업선택, 자아 정체감 형성, 이성 관계 형성, 대학 생활 적응 등 이후의 발달단계에서의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심리적 독립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4]. 부모로부터 대학생들이 독립의 과정을 잘 거친다면 나 자신과 진로에 대한 가능성을 깊이 있게 탐색하여 자신의 능력을 발견하며 신념과 가치관 등의 정체성을 발전시킬 수 있다. 그렇기에 후기 청년기에 속하는 대학생들의 독립은 부모와 다른 자아 정체성을 찾고 확립하기 위해 스스로를 깊이 있게 탐색하는 중요한 시기이자 과정이다.

서양의 부모들은 자녀에게 자율성과 책임감, 개인주의의 가치에 대해 강조한다[5]. 이러한 청소년 후기의 자율적 독립은 앞으로의 사회적응과 관련해 매우 중요한 발

달 과정이다[6]. 반면 한국 사회에서는 개인주의 성향이 짙은 서구문화와 달리 부모 자녀 관계의 유대가 개인의 삶에 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영향을 준다[7]. 부모 자녀 간의 관계에서 독립성을 강조하는 서양과는 다르게 한국에서는 부모와 자식이 상호의존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고 완전한 독립을 하는 것이 쉽지 않다. 가정 속에서 부모 자녀의 관계는 강한 유대로 이어져 있으며 많은 부분에서 집합주의의 문화들이 남아있다[8]. 그렇기에 우리나라 대학생은 밀착적이며 안정적인 가족 관계 아래 개별화된 심리적 독립을 이루어 나간다[9]. 살펴본 내용과 같이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모 자녀 관계에서의 완전한 독립은 아직 한계를 지니지만, 그럼에도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넘어가는 시기인 만큼 대학생의 독립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으로 준비하는 과정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대학생들의 독립에 관한 영향과 경험을 이해하기 위하여 부모와의 애착과 독립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 미치는 영향[10], 심리적 독립성과 자기 성장 주도성에 따른 대학 생활 적응[11], 부모로부터의 심리적 독립[12],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13]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앞선 연구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요인이 대학생의 진로 결정에서 심리적 독립과 함께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술하였고, 남녀 대학생의 심리적 독립과 대학 생활 적응의 관계 확인 및 사회적 관계의 조절 효과를 검증하였고, 남녀 대학생의 부모와의 관계와 심리적 독립 및 그 영향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대학생용 심리적 독립 척도 개발 및 검증하는 등의 연구가 있다[10-13]. 이와 같은 선행 연구를 통해 대학생 독립의 필요성과 독립이 갖는 장점에 대한 연구 결과와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연구자의 관점에서 나온 결과를 분석하기에 대학생의 주관적이고 개별적인 생각과 속성을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대학생의 주관적인 생각과 그 특성을 살피는 연구가 부족하므로 이를 다루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대학생 스스로 생각하는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인식에 대한 연구는 Q방법론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 신념, 느낌과 감정을 자연스럽게 파악하고 주관성의 구조에 의해 형성된 유형별 특징을 자세히 살피고[14] 보완함에 있다.

대학생은 학생이면서 동시에 사회의 일원이 되기 위한 독립적인 역할수행을 경험하는 시기로, 스스로의 노력과 더불어 사회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대학생이 생각하는 부모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주관적, 개별적 인식을 살펴보고 파악함으로써

어른의 삶과 독립에 대한 그들의 다양한 견해를 알고자 한다. 대학생이 갖는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과 특성은 성별, 학년, 전공, 거주지 등 여러 환경과 개인적인 생각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그렇기에 이를 고려하여 독립에 대해 대학생이 갖는 다양한 관점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는 것은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을 살피고 둘째,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별 특성 및 시사점에 대해 탐색 및 제시하는데 있다. 이러한 주관적 인식 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와 설명을 통해 대학생의 성숙한 독립생활 및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주관적 유형과 요인에 대해 구체적인 파악을 하여 향후 대학생 독립을 위한 교육 및 대학과 사회에서 지원할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이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주관적 인식을 살피고 유형별 특성을 살피는 데에 있다. 이를 위해 대상의 주관적 구조와 특징을 밝히는데 유용한 Q방법론을 활용하였다. Q방법론은 개인의 주관적인 특성에 초점을 두어 연구대상자의 생각과 마음 등과 같은 반응을 확인할 수 있다[15]. Q방법론의 연구 과정은 Q모집단을 수집하여 Q표본을 구성하고, P표본에 의해 강제 Q분류를 진행한다. Q분류의 과정을 거친 후 코딩을 통해 나온 유형별 결과를 분석한다.

2.1 Q 모집단(Q Concourse) 구성

Q-모집단은 Q 연구에 사용될 주제에 관한 주관적이고 내적인 항목의 모든 집합체를 모은 것이다[16]. 객관적인 사실이 아닌 개개인의 내면에 초점을 맞춰 대상이 갖고 있는 다양한 생각과 가치를 탐색하는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를 통해 전체적인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우선 선행연구 및 관련 문헌 검색을 위해 RISS와 Google Scholar를 통해 ‘대학생 독립’, ‘심리적 독립’, ‘경제적 독립’, ‘독립과 진로의 관계성’, ‘홀로서기’와 같은 키워드를 입력하여 관련 논문들을 조사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총 18개의 진술문을 얻었다. 구글폼을 활용하여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연구 사용 동의를 얻은 후 참여하도록 하였다. 연구 주제를 명시한 후 개인의 인적 사항에

관한 질문 5문항, 독립에 관한 주관적인 질문 8문항으로 이루어졌다. 24명의 대학생들이 설문조사에 참여하였고, 중복된 내용들을 제거하여 21개의 진술문을 수집하였다. 최종적으로 연구 동의를 얻은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년별 1명씩 40분씩 심층 인터뷰를 시행하였다. 이를 통해 51개의 진술문을 확보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해 18개 진술문, 설문조사를 통해 21개 진술문, 심층 인터뷰를 통해 51개의 진술문, 최종적으로 총 90개의 Q-모집단을 선정하였다.

2.2 Q 표본(Q Sample)의 선정

연구를 통해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새로운 생각을 발견하고 유형에 따른 해석을 하기 위해 비구조화된 표본을 활용했다[17]. 최종적으로 모집된 90개의 진술문에 대하여 Q방법론과 연구 주제 및 내용에 대해 알고 있는 교수 1인 외 석사과정 재학생 1인, 박사과정 재학생 2인을 통하여 진술문의 내용과 수정사항을 자문 받았다. 이후 완성된 진술문의 내용을 살피면서 비구조화된 Q표본으로 분류하였다. Q표본은 4개의 선정 기준에 따라 각각 10개로 범주화하여 총 40문항으로 선정하였다. <표 1>은 확정된 Q표본의 4가지의 유형 및 진술문의 개수이다.

Q표본 4가지 선정기준에 따라 ‘경제적 독립’, ‘심리적 독립’, ‘자아정체성 형성’, ‘부모 의존’으로 분류되었다. 위의 제시된 40문항의 진술문을 Q방법론 전문가 교수 1인, 코칭전문가 3인에게 전체적인 진술문의 문맥과 표본의 적합성을 재검토 받아 최종적으로 40문항의 Q-표본을 추출하였다. 이 과정을 통해 확정된 40문항의 Q-표본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Q Sample

No.	Q Statements
1	I think I can still feel a bond even if I am independent from my parents.
2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3	I want to be independent because I want to live the way I want and feel free.
4	When I feel that my lifestyle and values are different from my parents, I want to be independent.
5	I think parental support for independence is important.
6	I think independence means being mentally independent and not living with your parents.
7	I think a healthy body and mind are needed to be independent.

8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o respect and understand each other is the basis of independence.
9	I am worried that if I become independent, I will worry my parents.
10	I think I can feel a lot of depression when I am independent and alone.
11	I think independence from parents helps autonomy.
12	I think independence from parents helps me adapt to college life.
13	I think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y own identity for independence.
14	I think self-growth can be achieved through independence from parents.
15	I think independence from parents affects my dreams and goals.
16	I believe that independence gives me confidence.
17	I think I have to get married to be independent of my parents.
18	I have an ideal image of an independent life.
19	I want to quickly become independent and free from my parents.
20	I am afraid of being independent and having to do everything on my own and take responsibility.
21	I envy my friends who have become financially independent from their parents.
22	I think that if you become independent, you can learn financial sense more quickly.
23	I want to become economically independent and live a consumer life as I want.
24	If I think realistically, I think the most necessary thing to become independent is money, which is an economic factor.
25	I think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be alone.
26	I think economic independence is a state of not reaching out to parents at all.
27	I think I can start economic activities only when I get a job.
28	Because my parents taught me about money, I became more obsessed with financial independence and lost confidence.
29	I think that independent judgment can be difficult when engaging in independent economic consumption activities.
30	I think it's hard to be independent because I'm financially burdened.
31	I think there is no real independence in the world.
32	I believe that independence from parents is only possible through employment.
33	I don't like my place in the house being lost.
34	My parents' opinions influence my decision to become independent.
35	I like to have kinship with my parents, such as holding hands or hugging them.
36	I am more interested in getting a job than being alone.

37	When I become independent, I find it annoying to do all the housework by myself.
38	I think it would be painful if there was no one when I was sick or having a hard time.
39	I need time to talk to my parents.
40	I think it is still too early for college students to become independent.

2.3 P 표본(P Sample)

본 연구의 참여자인 P표본은 45명으로 현재 4년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남, 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45명의 대학생들은 1~4학년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다양한 전공 및 학과생들이며 현재 부모님과 함께 거주하거나, 독립하여 자취, 기숙사 생활 등 여러 주거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자는 연구윤리위원회(IRB)의 규정에 따라서 개인정보 비밀 보장 및 Q-설문의 내용을 연구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알렸고 이에 대한 동의를 얻었다. IRB 과정을 거침으로써 연구 윤리의 기준을 준수하고자 하였다.

2.4 Q분류(Q sort) 및 자료 분류

Q분류를 위해 연구 참여자인 45명의 대학생들에게 연구의 목적과 분류하는 방법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을 하였다. Q-표본인 40문항의 진술문이 적힌 용지를 읽고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Q-sort지에 일정한 분포로 분류하게 하였다. 그중 가장 동의하는 진술문 2문항을 오른쪽 끝에 배치하고, 가장 동의하지 않는 진술문 2문항을 왼쪽 끝에 배치하게 하였다. 이후, 끝 쪽에서 중간의 중립에 해당되는 진술문을 차례로 배치하도록 하였다. 전체적인 진술문 배치를 다시 보며 변경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었다. 최종적으로 Q-분류가 완료되면 Q-표본 분포도의 양 극단 끝에 배치된 가장 동의하는 이유 2가지와 가장 동의하지 않는 이유 2가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작성하게 하였다. 본 연구는 11점 척도를 활용하여 '가장 동의하지 않음'의 1점에서 '가장 동의함'의 11점으로 Q-분류를 진행했다.

Q분류에서 수집한 내용을 코딩 후 나온 결과를 분석하는 과정으로 진행되었고 교수님과 Q방법론 및 연구 과정에 대해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자문을 받았다. 11점 척도에 따라 점수화하고 코딩한 후 나온 값을 컴퓨터에 입력해 정리한 결과,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인식 유형은 총 4가지 유형으로 추출되었다.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유사한 인식을 가진 총 4개 집단으로 분류되었는데, 1유형은 17명, 2유형은 10명, 3유형은

10명, 4유형은 8명으로 유형화되었다. 유형별 설명력을 보여주는 아이겐 값은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1유형이 13.2050, 2유형이 3.7844, 3유형이 2.0132, 4유형이 1.8113으로 나타나고, 누적 변량은 .4625로 나타난다.

Table 2. The Eigen Value and Variance

Contents/Type	I	II	III	IV
CHOSEN EIGENVALUES	13.2050	3.7844	2.0132	1.8113
TOTAL VARIANCE	.2934	.0841	.0447	.0403
CUMULATIVE	.2934	.3775	.4223	.4625
SOLUTION VARIANCE	.6344	.1818	.0967	.0870
CUMULATIVE	.6344	.8163	.9130	1.0000

네 유형 간의 상관관계를 통해 각 유형 간의 유사성 정도를 알 수 있다. <Table 3>와 같이 1유형과 2유형의 상관계수는 .399, 1유형과 3유형은 .464, 1유형과 4유형은 .548, 2유형과 3유형은 .517, 2유형과 4유형은 .486, 3유형과 4유형은 .566으로 나타난다.

Table 3. Correlation between The 4 Types

Type	I	II	III	IV
I	1.000			
II	.399	1.000		
III	.464	.517	1.000	
IV	.548	.486	.566	1.000

3. 연구결과

3.1 인자가중치

아래 <Table 4>는 4가지 유형별 참여자의 인구학적 배경과 인자가중치를 보여주는데, 인자가중치가 1.0이상의 수치에 해당할수록 각 유형의 대표적인 특성을 갖는다[18]. 1유형은 17명, 2유형은 10명, 3유형은 10명, 4유형은 8명이다. 1유형은 P=17명 중 P04가 2.1834, 2유형은 P=10명 중 P07이 1.0212, 3유형은 P=10명 중 P02가 1.6465, 4유형은 P=8명 중 P06이 1.2043으로 각 유형별 가장 높은 인자가중치 값을 보였다.

Table 4. P sample Background and Factor Weights

Type	OVAR	WEIGNT	SEX	YEAR	RESIDENCE
Type 1 (N=17)	P01	1.3264	Female	4	Home
	P03	.7477	Female	3	Independent
	P04	2.1834	Female	4	Home
	P08	1.7635	male	3	Home
	P11	1.1605	Female	3	Home
	P13	1.0382	Female	4	Home
	P14	1.8211	male	2	Home
	P16	1.1676	Female	2	Home
	P19	.6608	male	4	Independent
	P23	.9310	Female	3	Dormitory
	P26	2.0527	male	3	Independent
	P31	.7803	male	2	Independent
	P33	1.1343	Female	3	Home
	P37	.5267	male	2	Home
	P41	1.2704	male	2	Home
	P44	.6206	male	2	Home
	P45	1.2110	Female	2	Dormitory
Type 2 (N=10)	P07	1.0212	male	3	Dormitory
	P10	.5142	male	4	Etc
	P15	.7505	Female	2	Dormitory
	P20	.8710	Female	3	Home
	P25	.6783	male	4	Independent
	P32	.4481	Female	1	Home
	P34	.8459	male	1	Home
	P38	.6779	Female	4	Home
	P42	.6813	Female	4	Independent
	P43	.7386	male	1	Dormitory
Type 3 (N=10)	P02	1.6465	male	4	Home
	P05	.9376	Female	3	Independent
	P09	.6192	Female	1	Home
	P17	.4977	male	1	Home
	P21	.4651	Female	1	Home
	P24	.5017	Female	4	Home
	P29	.3045	Female	2	Home
	P30	.7352	male	1	Dormitory
	P36	.2466	male	2	Dormitory
	P39	.5750	Female	3	Independent
Type 4 (N=8)	P06	1.2043	Female	4	Independent
	P12	1.0110	male	1	Home
	P18	.7305	Female	4	Independent
	P22	.5966	male	3	Independent
	P27	.6172	Female	4	Home
	P28	.9825	Female	1	Etc
	P35	.4321	male	1	Home
	P40	.3880	male	1	Independent

3.2 유형1: 부모로부터 현실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

1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은 그들의 이상적인 독립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는 경제적 요소로 생각하고 있으며 부모로부터 독립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독립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며 독립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기에 '부모로부터 현실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으로 명명하였다.

결과를 보면, Q1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여전히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z=1.45)', Q14의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통해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z=1.19)', Q18의 '나는 독립적인 삶에 대해 이상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z=1.16)'로 나타난다.

Table 5. The Statements of Type 1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24	If I think realistically, I think the most necessary thing to become independent is money, which is an economic factor.	1.84
1	I think I can still feel a bond even if I am independent from my parents.	1.45
22	I think that if you become independent, you can learn financial sense more quickly.	1.36
14	I think self-growth can be achieved through independence from parents.	1.19
18	I have an ideal image of an independent life.	1.16
29	I think that independent judgment can be difficult when engaging in independent economic consumption activities.	1.13
13	I think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y own identity for independence.	1.09
7	I think a healthy body and mind are needed to be independent.	1.09
11	I think independence from parents helps autonomy.	1.03
39	I need time to talk to my parents.	-1.17
34	My parents' opinions influence my decision to become independent.	-1.20
33	I don't like my place in the house being lost.	-1.36
20	I am afraid of being independent and having to do everything on my own and take responsibility.	-1.37
9	I am worried that if I become independent, I will worry my parents.	-1.42
37	When I become independent, I find it annoying to do all the housework by myself.	-1.48
17	I think I have to get married to be independent of my parents.	-1.73
32	I believe that independence from parents is only possible through employment.	-1.84

이를 통해 1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독립을 필요시하고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동의하는 항목인 Q24의 '나는 독립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요소라고 생각한다(z=1.84)'와 Q22의 '나는 독립을 하면 경제적 감각을 익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z=1.36)', Q29의 '나는 경제적 독립을 통해 자산을 스스로 관리하고 싶다(z=1.13)'을 통해서 1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독립을 선택하고 실행함에 있어서 경제적인 요소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동의하지 않는 항목은 Q32의 '나는 여건만 된다면 독립하고 싶지 않다(z=-1.73)', Q37의 '나는 독립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조차 귀찮다.'(z=-1.48), Q20, 33, 34 등의 항목들이다.

1유형으로 분류된 참여자 중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은 P04는 "나이가 있어서 빨리 독립하여 부모로부터 벗어나는데 적절한 시기이고, 현실적으로 경제적 요소가 있어야만 독립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P26은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했다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혹은 물리적으로 독립한 것이기에 심리적인 유대감에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 같으며 자주 연락을 하여 부모님과의 유대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다.",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면 독립해서 혼자 살아가기 어려울 것 같기에 독립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하였다.

3.3 유형2: 부모를 벗어난 독립이 두려운 대학생

2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은 부모님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독립에 대해서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부모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는 것의 두려움으로 인해 아직 독립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이기에 '부모를 벗어난 독립이 두려운 대학생'으로 명명하였다.

2유형의 경우 Q1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여전히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z=1.94)', Q7의 '나는 독립하기 위해서는 건강한 신체와 정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z=1.45)', Q8의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관계가 독립의 바탕이 된다고 생각한다(z=1.41)'에서 강한 동의를 보이면서 부모로부터 독립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지만 한편으로 Q38에서 '나는 아프거나 힘들 때 아무도 없다면 고통스러울 것 같다(z=1.37)', Q31의 '나는 세상에 진정한 독립은 없다고 생각한다(z=1.28)'의 항목에서 높은 동의를 보이며 독립의 어려움 역시 크게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항목을 살펴보면 Q19의 '나는 빨리 독립하여 부모로

부터 벗어나고 싶다($z=-2.26$), Q28의 '나는 부모가 돈에 대해 뉘달할 때 독립을 하고 싶다($z=-2.07$)', Q33의 '나는 독립 후에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쉽다($z=-1.55$)'를 통해 2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아직 부모로부터 벗어나 독립하고 싶어 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유형들의 구체적인 진술문 내용들을 살펴보면 인자 가중치가 가장 높게 나온 P7은 "부모 자식 간에 완전한 독립이 있을 정도로 부모와 자식 사이의 관계가 가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기쁜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알리고, 슬픈 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위로받고 싶은 존재가 부모님인데, 경제적 독립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절대 독립할 수 없기에 세상에 완전한 독립은 없다고 생각한다.", "경제적 독립하는 것은 독립의 시작이라고 생

각하는데 아무리 경제적 독립을 이뤄도 정신적으로 완전한 독립을 할 수 없기에 부모와 평생 유대감을 느끼며 살아갈 것 같다고 생각한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P34인 대학생은 "아프거나 힘들 때 의지할 사람이 옆에 없다면 매우 힘들고 지칠 것 같다.", "부모님과 같이 살다가 혼자 살려고 하면 부모님의 지지가 있어야 한다. 부모님은 자신의 자식을 매일 지켜보다 독립을 하게 된다면 허전함과 적막함을 느끼실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3.4 유형3: 자아 성장을 이루며 독립하려는 대학생

3유형에 해당하는 대학생들은 독립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 개인의 자아 정체성 확립이나 자아 성장 및 경험을 쌓고 이를 통해 독립을 하는 것에 더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자아 성장을 이루며 독립하려는 대학생'으로 명명하였다.

유형 3을 살펴보았을 때 Q14에서 '나는 부모로부터 독립을 통해 자아 성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z=1.72$)'가 가장 동의하는 항목이었으며, Q27 '나는 독립을 위해서는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z=1.48$)', Q13 '나는 독립을 위해서는 나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z=1.29$)'에 높은 동의를 보이며 자아 정체성 및 자아 성장에 대한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독립을 위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노력형의 모습을 보인다.

반면, Q17의 '나는 결혼을 해야지 부모로부터 독립이 된다고 생각한다($z=-2.05$)'에서 3유형은 독립이 결혼과 같은 특정한 상황에서만 이뤄진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Q19의 '나는 빨리 독립하여 부모로부터 벗어나고 싶다($z=-1.85$)', Q28의 '나는 부모가 돈에 대해 뉘달할 때 독립을 하고 싶다($z=-1.52$)', Q33의 '나는 독립 후에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쉽다($z=-1.34$)'의 진술문을 통해 독립에 대해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자아 성장의 경험과 충분한 준비 기간을 거쳐 상황에 맞게 부모로부터 독립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3유형에 해당하는 의미 있는 진술문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P2는 "취업을 하지 않고 독립할 경우 결국 다시 부모님에게 손을 벌려야 되기 때문에 독립한 이유가 위배된다.", "취업을 하면 경제적 독립이 가능하고 정신적으로 성장할 토대가 생긴다."라고 진술한다. 또한, P5는 "경제적 독립이 독립하기 위한 바탕이라고 생각하기에 취업은 필수적이라고 생각한다.", "부모님과의 유대감은 독립 여부와 상관없이 평생 지속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

Table 6. The Statements of Type 2 and Z-score (More than ± 1.00)

No	Statements	Z-score
1	I think I can still feel a bond even if I am independent from my parents.	1.94
7	I think a healthy body and mind are needed to be independent.	1.45
8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o respect and understand each other is the basis of independence.	1.41
38	I think it would be painful if there was no one when I was sick or having a hard time.	1.37
31	I think there is no real independence in the world.	1.28
24	If I think realistically, I think the most necessary thing to become independent is money, which is an economic factor.	1.14
5	I think parental support for independence is important.	1.14
2	I think it is important to have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1.07
13	I think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y own identity for independence.	1.06
30	I think it's hard to be independent because I'm financially burdened.	1.03
25	I think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be alone.	-1.15
4	When I feel that my lifestyle and values are different from my parents, I want to be independent.	-1.17
17	I think I have to get married to be independent of my parents.	-1.26
33	I don't like my place in the house being lost.	-1.55
28	Because my parents taught me about money, I became more obsessed with financial independence and lost confidence.	-2.07
19	I want to quickly become independent and free from my parents.	-2.26

Table 7. The Statements of Type 3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14	I think self-growth can be achieved through independence from parents.	1.72
27	I think I can start economic activities only when I get a job.	1.48
38	I think it would be painful if there was no one when I was sick or having a hard time.	1.46
7	I think a healthy body and mind are needed to be independent.	1.39
24	If I think realistically, I think the most necessary thing to become independent is money, which is an economic factor.	1.37
13	I think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my own identity for independence.	1.29
20	I am afraid of being independent and having to do everything on my own and take responsibility.	1.29
4	When I feel that my lifestyle and values are different from my parents, I want to be independent.	1.16
26	I think economic independence is a state of not reaching out to parents at all.	1.02
39	I need time to talk to my parents.	-1.16
31	I think there is no real independence in the world.	-1.20
37	When I become independent, I find it annoying to do all the housework by myself.	-1.23
33	I don't like my place in the house being lost.	-1.34
28	Because my parents taught me about money, I became more obsessed with financial independence and lost confidence.	-1.52
19	I want to quickly become independent and free from my parents.	-1.85
17	I think I have to get married to be independent of my parents.	-2.05

3.5 4유형: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려는 대학생

4유형에 속하는 대학생들이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나 친밀함보다 심리적 자립을 꿈꾸고, 독립을 함에 있어 경제적 요소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며 독자적인 개인의 자립에 대한 의지를 보이기 때문에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려는 대학생’으로 명명하였다. 4유형에 해당하는 이들은 Q24의 ‘나는 독립을 하려면 가장 필요한 것은 경제적 요소라고 생각한다($z=2.27$)’에 가장 강한 동의를 보이며, 이어서 Q1의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여전히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z=1.68$)’, Q4의 ‘나는 부모와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르다고 느낄 때, 독립하고 싶어진다($z=1.39$)’에서 높은 동의를 보였다.

반면, Q33의 ‘나는 독립 후에 집에서 나의 위치가 없어지는 것이 아쉽다($z=-2.46$)’ 항목을 가장 동의하지 않

는다. Q35의 ‘나는 부모와 친밀할수록 독립은 어렵다고 생각한다($z=-1.68$)’을 통해서도 그들의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고자 하는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동의하지 않는 항목으로는 Q17, 40, 28등의 항목이 있다.

4유형을 대표하는 대학생의 진술 내용에 따르면 P6은 “유대감은 부모와 자식이라는 관계에서 나오는 것이 더 크다고 생각한다. ‘같이 생활하는 사람’이라는 존재 자체가 유대감이 형성될 수도 있지만 독립을 해도 서로의 안부를 묻고, 어떻게 생활하는지 공유하고, 심리적으로 의지를 하고 가족이라는 관계를 느낀다면 여전히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라고 진술하고 있다. P12는 “요즘 집값이 높기에 경제적 요소가 없다면 독립을 못한다.”라고 하였다.

Table 8. The Statements of Type 4 and Z-score (More than ±1.00)

No	Statements	Z-score
24	If I think realistically, I think the most necessary thing to become independent is money, which is an economic factor.	2.27
1	I think I can still feel a bond even if I am independent from my parents.	1.68
25	I think it takes a considerable amount of money to be alone.	1.50
4	When I feel that my lifestyle and values are different from my parents, I want to be independent.	1.39
8	I think the relationship between parents and children who respect and understand each other is the basis of independence.	1.32
7	I think a healthy body and mind are needed to be independent.	1.25
5	I think parental support for independence is important.	1.07
28	Because my parents taught me about money, I became more obsessed with financial independence and lost confidence.	-1.29
40	I think it is still too early for college students to become independent.	-1.33
17	I think I have to get married to be independent of my parents.	-1.49
35	I like to have skinship with my parents, such as holding hands or hugging them.	-1.68
33	I don't like my place in the house being lost.	-2.46

4.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Q 방법론을 활용해 현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1~4학년 대학생들에 의해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인식을 이해하고, 이를 토대로 나온 4가지 유형에 따라 분

석하여 각각의 특성을 심도 있게 살펴보고 대학생의 독립에 대한 대학과 사회의 관심과 더불어 교육 및 정책의 지원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실시하였다. 인식 유형의 결과로는 1유형은 '부모로부터 현실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 2유형은 '부모로부터 벗어난 독립이 두려운 대학생', 3유형은 '자아 성장을 이루며 독립하려는 대학생', 4유형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려는 대학생'으로 나타났다.

1유형은 '부모로부터 현실적인 독립을 추구하는 대학생'으로 이 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은 부모로부터 독립이 갖는 의미와 필요성을 알고 이해하며 이를 추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들은 독립의 과정을 통해 자아 성장을 이룰 수 있고, 부모와의 유대감을 유지하며 경제적 독립을 하기 위한 노력을 통해 경제적인 감각을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현실적이며 이상적인 독립을 꿈꾸는 1유형은 부모로부터 빨리 독립하여 스스로를 책임지고자 하는 생각과 자세를 갖고 있다. 자녀가 부모와는 다른 자신만의 기준과 판단에 의해 생각하고 행동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은 후기 청소년과 성인 진입기의 대학생에게 중요한 부분이자 그들의 정서적 성장과 발달에 많은 영향을 미친다[19]. 1유형의 대학생이 추구하는 부모로부터 독립이란 일상에서도 이에 대한 자신만의 생각을 토대로 이상적인 독립의 모습을 실현하려는 가치관들이다. 그들은 스스로 정신적, 육체적인 건강을 챙겨서 건강한 신체와 정신을 갖는 것이 독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표현한다. 그리고 독립을 위해서는 부모와 분리 개별화되어 [20] 자신만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는 독립의 유무가 중요한 것이 아닌 어떻게 독립하였는지를 살필 수 있는 절차와 독립의 내용 그 자체가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밝힌 선행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21]. 1유형에 속한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이상적인 독립에 대한 꿈이 큰 만큼 실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고 도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의 이상적인 독립이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바람직한 과정과 방향으로 인도할 필요가 있다.

2유형은 '부모로부터 벗어난 독립이 두려운 대학생'으로 이들은 부모님과 상호 존중을 통한 독립에 대해 이해하지만 동시에 한편으로 아직 부모를 벗어난 홀로서기의 과정이 어렵고 두려워 독립을 하고 싶지 않은 모습을 보인다. 세상에 진정한 독립이 없다고 생각하며, 그들은 독립 후 아프거나 힘들 때 자신의 주변에 아무도 없다면 고통스러움을 느낄 것이다. 반면 2유형은 독립에 대한 자신의 입장만큼 부모님의 입장과 지지를 살피는 모습이

었는데, 부모와의 정서적 유대와 긴밀한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하였다. 부모와의 애착과 심리적 독립이라는 두 가지 면에서 균형을 잡아야 되는 중요한 변화의 시기가 대학생 시기이기에 일방적인 독립의 선택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존중하고 지지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독립하고자 하였다[22]. 실제로 대학생들의 개별화 과정이 부모님과 안정된 애착 관계 안에서 편안함을 느끼고 독립성을 바탕으로 스스로와 세상을 탐색할 때에 비로소 부모와의 분리 불안에 대한 부정적 심리를 극복하고 독립된 성인이자 개체로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연구 결과 [23]와 같이 2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부모로부터 심리적 독립을 하는 과정의 중요성을 알고 있고, 독립을 위해서 자신만의 정체성의 확립하는 것을 추구하였다. 이들은 독립에 대한 두려움과 부담을 갖고 있지만 스스로 힘으로 잘 헤쳐 나갈 수 있는 기반적 토대가 있기에 극복해 나아갈 수 있도록 많은 경험과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유형은 '자아 성장을 이루며 독립하려는 대학생'으로 자아를 확립하고 성장하는 과정 속에서 스스로 준비의 과정을 충분히 거친 후에 독립을 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경제적 요소를 독립의 필수 요소로 생각하여 이를 위한 취업을 해야 된다고 여긴다. 독립을 추구하면서도 경험을 쌓고 충분한 시간을 거친 이후에 부모로부터 독립을 하려는 신중함을 갖고 있다. 3유형의 대학생은 자아의 이해를 바탕으로 형성된 가치관들을 토대로 자신의 진로를 선택하고 독립을 서서히 계획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유의미하게 관찰된 것은 부모와의 유대감을 중요시 여기고, 애착에 집착하지 않으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점이다. 부모와 안정적인 애착을 기반으로 하여 정신적이고 경제적인 독립을 통해 성장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보였다[24]. 관련된 선행 연구 결과에서는 부모와의 애착 관계가 안정적일수록 스스로를 하나의 독립된 개체로 인식하게 되면서 정서적으로 좀 더 편안한 상태에서 개별화를 이루게 되며 애착이 잘 형성되었을 경우 어떠한 상황에 직면했을 때, 성공적인 해결을 할 수 있다는 자기 신뢰가 강하게 나타나고 이에 따른 자기 효능감을 증진시키게 된다고 하였다[24]. 즉 3유형은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와 애착을 바탕으로 건강한 신체와 정신, 독립에 대한 관점을 갖고 적절한 시기에 맞는 경제적 독립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이다. 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아 정체성을 찾고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

4유형은 '부모로부터 완전히 자립하려는 대학생'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대학생은 부모와의 유대보다는 자신의 경제적, 심리적 자립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며 완전한 자립에 대한 의지가 확고하였다. 실제로 대학생도 충분히 독립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들은 부모와의 생활 습관과 가치관이 다를 때에 독립하고 싶어지며 독립 후에 자신의 위치가 집에서 없어지는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대적으로 적었다. 반면, 부모 자녀 간의 상호 존중과 이해가 독립의 배경이라고 생각하며 독립에 대한 부모의 지지 역시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보아 가족이라는 관계 안에서 여전히 유대감을 느끼며 건강한 독립의 형태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유형의 대학생은 긍정적 변화를 가져오기 위해 주도적으로 여러 방법들을 살피고 실행하며 자기성장주도성을 갖췄을 것이다. 실제로 기존 선행 연구에서는 자기 성장 주도성이 높으면 자율적인 동기에 의해 이루고자 하는 목표를 추구하게 되고, 이는 적응적인 삶을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임을 말한다 [25]. 이처럼 4유형에 속한 대학생이 성숙한 자립을 잘 이룰 수 있도록 저학년과 고학년 개별에게 필요한 대학 내의 프로그램 실행과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모든 유형의 일치 항목으로는 총 10개가 나왔는데, 그 중 모두 가장 동의한 일치 항목은 '나는 부모님으로부터 독립해도 여전히 유대감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한다.'이다. 4가지 유형의 대학생들은 공통적으로 독립을 하여도 부모와의 유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거나 혹은 독립 후 유대감을 느끼기 위해 노력할 수 있는 대안에 대해 생각한다. 결국 부모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었다고 하여도 부모 자녀 간의 유대감 역시 중요하게 인식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두 가장 비동의 항목으로는 '나는 결혼을 해야지 부모로부터 독립이 된다고 생각한다.'이며 각 유형별 독립의 필요성에 대해 느끼는 바는 다르지만 모든 유형에게 독립이 결혼이라는 시기에 있어서만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율적인 선택에 따른 독립을 이루고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관점을 중심으로 4가지 제언을 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4가지 유형의 대학생들은 독립과 더불어 부모와의 유대와 관계 형성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기에 독립에 있어서 부모의 지지와 존중의 역할이 크다.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가 정말로 원하는 독립의 모습이 무엇인지, 독립을 하고 싶은 혹은 하고 싶지 않은 이유 등 독립에 대한 그들의 생각에 귀 기울여 들어주고 자율적인 선택을 지지하며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성인이 되어가는 과정을 믿어주어야 한다.

둘째, 모든 유형의 대학생들은 부모와의 긴밀한 유대

감과 애착을 형성하고자 하는 경향을 보인다. 다만, 부모와의 유대를 바탕으로 독립을 준비하는 사람과 실제로 노력하며 실행하는 사람과는 달리 부모님과의 상호 존중을 통한 독립에 대해 이해하지만 아직 부모를 벗어나 홀로서기를 하기에 두려움을 느끼는 대학생도 있었다. 부모로부터 정서적 독립하는 것이 어렵고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는 대학생들에게 독립의 경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그들이 독립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볼 수 있게끔 도와주는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대학생들이 부모로부터 성숙하고 건강한 독립을 할 수 있도록 학교의 긍정적인 개선 방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학생들의 학교 적응과 진로 탐색을 잘할 수 있는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며, 끊임없는 관심으로 학생들을 이해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한다. 무엇보다 위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독립에 있어 경제적인 요소를 중요시 여기는 대학생들이 많은 것을 보아 취업에 대한 안내와 지원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 같다. 이 과정에서 대학생 개인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주제의 상담, 코칭, 교육을 접목시켜 진행하면 학생들의 경험에 실질적으로 많은 도움이 될 것 같다.

넷째, 대학생들의 독립에 있어서 가정과 학교와 더불어 사회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청년들의 독립을 지원하는 주거, 경제, 교육 정책 지원 시스템이 만들어진다면 대학생들이 독립에 대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폭넓은 정보를 바탕으로 자립을 선택하고 실행하는 과정이 더 수월할 것으로 같아 현실적으로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본 연구는 서울에 있는 4년제 대학에 재학 중인 다양한 성별, 학년, 학과, 거주지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Q방법론을 활용한 연구를 하였지만 전반적인 국내의 대학생들의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유형화와 주관성을 반영한 특성을 살피는 데에 한계가 존재했다. P-Sample에서 학년에 대한 제시뿐만 아닌 실질적인 연령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복학생, 만학도 등 여러 상황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전문대학이나 기숙학교와 같은 다양한 형태의 대학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것을 토대로 추후 연구에서는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상과 관점을 더 넓게 확대해야 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부모로부터 독립에 대한 대학생의 주관성을 토대로 4가지 유형별 특성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각각의 독립에 대한 관점과 더불어 앞으로의 독립을 이루어 나갈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의 독립에 대한 고민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고,

가정, 학교, 정부와 사회 전반에서의 대학생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추후 대학생의 독립과 성장에 대한 논의 및 기초 자료로 제공되어 교육과 프로그램 개발 활용 등을 통해 미래의 학생들이 성공적인 독립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돕고자 한다.

References

- [1] J. H. Kang, "A Study on the Process of Undergraduate's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pplying Grounded Theory",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Education, Graduate School, Dankook University, pp.7 <https://zrr.kr/ZkPe>
- [2] Erik H. Erickson. "Identity,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Company", *Journal of the Society for General Systems Research*, Vol.14 No.2, pp.154-159, 1968 DOI: <https://doi.org/10.1002/bs.3830140209>
- [3] Josselson, R. "The embedded self: I and thou revisited. In D. K. Lapsley & F. C. Power (Eds.), *Self ego, and identity: Integrative approaches*. pp. 91-106, 1988 https://link.springer.com/chapter/10.1007/978-1-4615-7834-5_5
- [4] S. Y. Kim, Na Ya Choi. "The Effects of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Parents on Conflict Solving Strategies for Dating Relationship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among Male and Female University Students", *Human Ecology Research*, Vol.49 No.9, pp.35-45, 2011 <https://zrr.kr/2HOu>
- [5] Y. H. Moon, K. S. Han, "Comparison of the Rearing of Creative Achievers in the East and the West", *Journal of Talented Education*, Vol.20 No.2, pp.395-426, 2010 UCI: G704-001841.2010.20.2.003
- [6] M. S. Oh, "Effect of Mother's Parenting Attitude and Psychological Independence on School Life Adaptation", Master's Thesis, Graduate School, Hanyang University, 2006
- [7] S. Y. Park, J. Y. Lee, "The Relationships Among The Parent-Child Affective Bonding, Self-Differentiation and Interpersonal Relationship", Ph.D dissertation,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190, 2005
- [8] Kim, U, "Unraveling the complexities of human destructiveness, creativity, and potential: Indigenous analysis of the self, relationship, cultures and civilizations. Presidential address of Division of Psychology and National Development", *International Congress of Applied Psychology, Singapore*, July. 2002
- [9] J. H. Lee, Y. S. Choi, "The Effects of Family System on Psychological Independence from Parents among Unmarried Women", *Journal of Families and Better Life*, Vol.24 No.4, pp.75-92, 2006 UCI: G704-000320.2006.24.4.010
- [10] E. Y. Jeon, K. I. Kwon, "The Effect of Attachment and Independence on the College Students' Career Decision-making: Mediated by Self-Esteem",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Vol.12 No. 1, pp.243-260, 2011 DOI: <https://doi.org/10.15703/kjc.12.1.201103.243>
- [11] J. A. Park, M. K. Jin, "The Moderating Effects of Close Social Relationships: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College Adjustment", *The Korean Journal of Human Development*, Vol.22 No.1, pp.101-123, 2015 DOI: <https://doi.org/10.15284/kjhd.2015.22.1.101>
- [12] S. Song, H. I. Park, "Empirical study on the psychological separation from their parents of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Parent Education*, Vol.3 No.2, pp.5-25, 2006 <http://www.newnonmun.com/article=13076>
- [13] J. H. Moon, S. M. Cheon,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Scale for University Students",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21 No.3, pp.253-276, 2020 DOI: <https://doi.org/10.15703/kjc.21.3.202006.253>
- [14] Steven R. Brown, "Q Methodology as the Foundation for a Science of Subjectivity", Presented at the 11th International Conference of the International Society for the Scientific Study of Subjectivity, College of Medicine, University of Illinois, Chicago, 1995
- [15] S. H. Cho, "A Study on Korean Seafarers Public Image based on the Q-methodology",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rine Environment and Safety*, Vol.25 No.2, pp.189-200, 2019 URL: <https://db.koreascholar.com/Article/Detail/370501>
- [16] H. G. Kim, "Understanding the Q Methodology for Subjectivity Research", *The Seoul Journal of Nursing*, Vol.6 No.1, pp.1-11, 1992 <http://www-riss-kr.sproxy.dongguk.edu/link?id=A2083741>
- [17] S. E. Kim, "Theory and Philosophy of Q Methodology", *Korean Society and Public Administration*, Vol.20 No.4, pp.1-25, 2010 <https://zrr.kr/c0DA>
- [18] H. G. Kim, "Q Methodology: Philosophy of Science, Theory, Analysis and Application", pp.510, Communication Books: Seoul, 2008
- [19] Blos, P, "The Adolescent Passage: Developmental Issues", pp.521,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1979
- [20] Paris, J, "The oedipus complex. A critical re-examination", *Canadian Psychiatric Association Journal*, Vol.21 No.3, 173-179, 1976 DOI: <https://doi.org/10.1177/070674377602100308>
- [21] Y. R. Kim, K. H. Lee, "The Differences in College Student Adaptation and Coping Strategy of the Subgroups using Psychological Separation, Dependence Denial, and Personal Growth Initiative", *Korea Journal of Counseling*, Vol.13 No.5, 2012 DOI: <https://doi.org/10.15703/kjc.13.5.201210.2251>
- [22] Schwartz, J. P., & Buboltz, W. C., Jr, "The Relationship between Attachment to Parents and Psychological Separation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Vol. 45 No.5, pp.566-577, 2004
DOI: <https://doi.org/10.1353/csd.2004.0062>

- [23] H. K. Jeon, "The effect of maternal psychological control on the depression of university students: The mediation effects of the need for approval, psychological separation and adult attachment", *Studies on Korean Youth*, Vol.27 No.3, pp.97-131, 2016
UCI: G704-001385.2016.27.3.009
- [24] O'Connor T. J, Allen J. P, Bell. K. L, Hauser. S. T, "Adolescent-parent relationships and leaving home in young adulthood", *New Dir Child Dev.*, Vol.71, pp.39-52, 1996
DOI: <https://doi.org/10.1002/cd.23219967105>
- [25] H. R. Han, J. M. Lee, "Mediating Effects of Psychological Independence and Self-Efficacy on Association between Parental Attachment and Career Maturity in Male and Female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Vol.25 No.5, pp.531-544, 2016
UCI: G704-001335.2016.25.5.001

이 예 지(Ye Ji Lee)

[준회원]



- 2023년 8월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심리학석사 수료)

<관심분야>

리더십, 진로코칭, 라이프코칭, 긍정심리학, Q방법론

이 송 이(Song Yi Lee)

[정회원]



- 2010년 10월 : Columbia University Teachers College (행동장애 문학석사)
- 2007년 8월 :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아동청소년복지학과 (문학박사)
- 2020년 3월 : 동국대학교 일반대학원 상담코칭학과 sms
- 2022년 3월 ~ 현재 : 미래융합대학원 융합상담코칭학과 책임교수

<관심분야>

에니어그램, 코칭, Q방법론, 긍정심리학, 아동청소년복지